



## 아홉번째 이야기

# 주 예수를 믿으라

[신앙 에세이③]



유교 집안 종갓집 종손으로 태어나 교회와는 멀리 있었던 저에게 믿음의 아내를 보내주셔서 온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984년에 결혼한 후 20여 년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데이 크리스천의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일로 생각하며 억지로 나의 체면을 위해 하다 보니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에 온누리 교회로 옮기면서 새가족 등록과정을 이수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대일 동반자, 양육자, 순장사관학교 등 여러 훈련을 마치며 말씀을 조금씩 깨닫게 되자 순장, 다락방장, 총무의 사역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었고 공동체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2008년 OBA 10기로 시작하여 성경 말씀이 꿀같이 달고 오묘함을 알게 되었고, 심화 과정을 수강하며 말씀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OBC(Onnuri Bible Club)와 OBA(Onnuri BEE Academy)를 섬기며 사역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OBA 수련회 때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보고 종손으로서의 평생 숙원이었던 선조님들의 납골묘를 석관묘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석관묘 뚜껑에 담대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16:31)라는 성경 말씀을 새겨 넣어서 후손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기도했습니다.



선조 납골묘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할 때 선교비보다 사역자 사례비를 먼저 지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었는데 OBA 학생들과의 해외 Outreach를 통해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직접 보고 많은 것을 느우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빔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2008년 베트남 BEE Outreach를 시작으로 Love Sonata와 공동체 Outreach 등 매년 1회 이상 해외 선교지에 가기로 하고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BEE 사역과 공동체 OGP(Onnuri Gospel Project)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 사역의 소중함과 사역의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함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99세 장모님을 섬기며 초등 학교 2학년 외손녀를 돌보고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저희 부부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BEE 사역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매주 토요일 새벽이 기다려집니다. BEE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생애 하나님을 위해 올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해봅니다.

[글쓰기 반상섭 집사]



온누리교회로 옮긴 후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고 강 장로님의 강권과 2008년 OBA를 계기로 BEE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2012년~2017년 OBC(Onnuri Bible Club) TL 및 팀장으로 섬겼고, 2015년부터 OBA(Onnuri BEE Academy) 팀장 및 국내사역본부를 섬기며, 은퇴 후 오롯이 말씀과 하나님 일에 맘과 몸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 장모님(정순여권사/99세)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으며, 기도 대장인 아내 권정숙 권사, 큰딸 수연(시카고 난데일 기독교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둘째 딸 주연, 사위 김건욱, 외손녀 김수아(초2)가 있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BEE 소식

- 2023년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리안이나 아민안이나 자혜 있는 자나  
 여러색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리(롬1:14).”
- 아프리카 현지화 사역을 위한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본부로 보내주세요! 선교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나는 평생 상명하복을 당연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영 마뜩잖아하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호소하며 간청했다.

12년 전, 유대의 백부장으로 임관해 전출 오는 길에 델로스섬 노예시장에 들러 사택에서 부릴 종을 매입했다.

전쟁통에 고아가 된 가련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청년은 말도 없고 풍습도 낯선 갈릴리 땅에 도착했을 때 오히려 우리 가족을 안심시키며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그때부터 그는 우리 집 말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다.

“예수가 거의 다 왔다는군!” 빛이 달려와 알려준다.

“오오, 정말인가? 이리도 감사할 데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돕는 게 거리끼었을 텐데...”

나는 황급히 빛들에게 부탁하여 예수께로 보냈다.

나는 평생 상명하복을 당연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그분이 말하시면 병은 마땅히 복종하여 떠날 것이니. 나는 레갈로 곁에서 조용히 그분의 하명을 기다린다.

나는 그 아이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도록 허락해 주었고, 나중엔 그를 내게 선물한 이 민족마저 사랑하게 되었다. 수년 전에 남은 회당을 새로 지으려고 큰돈을 후원했더니 이곳 장로들은 이방인인 나를 무한히 신뢰해 준다.

... 아! 그리고 보니,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유대의 정결법을 어기게 되는 걸 전혀 생각을 못 했다! 그리되면 도운받는 처지에 너무나 큰 결례를 범하게 된다.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